

[**사 회**]

■ **치매병원 등 부재자 투표소 설치 눈길**

“치료효과 크다” “제대로 찍을까”

대학 캠퍼스내 설치하는 무산

5·31 지방선거의 광주·전남 부재자 투표소(광주·전남 39곳)가 결정됐다. 선관위는 22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을 마쳤다. 투표일은 오는 25~26일이다.

대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거론됐던 캠퍼스 내 투표소 설치에는 무산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신박약자와 치매 및 알콜 중독자들이 입원한 요양시설에 투표소가 마련된 점이다.

◆**눈길 끄는 투표소**=광주시립인광치매요양병원을 비롯, 국립나주병원·무등정신요양원·빛고을정신요양원 등에서 설치를 희망했다. 기관·시설 내 부재자 투표는 지역 선관위가 관리를 책임진다.

인광치매요양병원 박인수 이사장은 “중증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80여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한다”며 “환자들이 입후보자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기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살아있다’는 자식감과 자존심을 갖게 되는 좋은 치료 효과가 있어 지난해

에 이어 다시 부재자 투표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명한 유권자지만, 기표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요양시설의 투표 용지 중에서 상당수 무효표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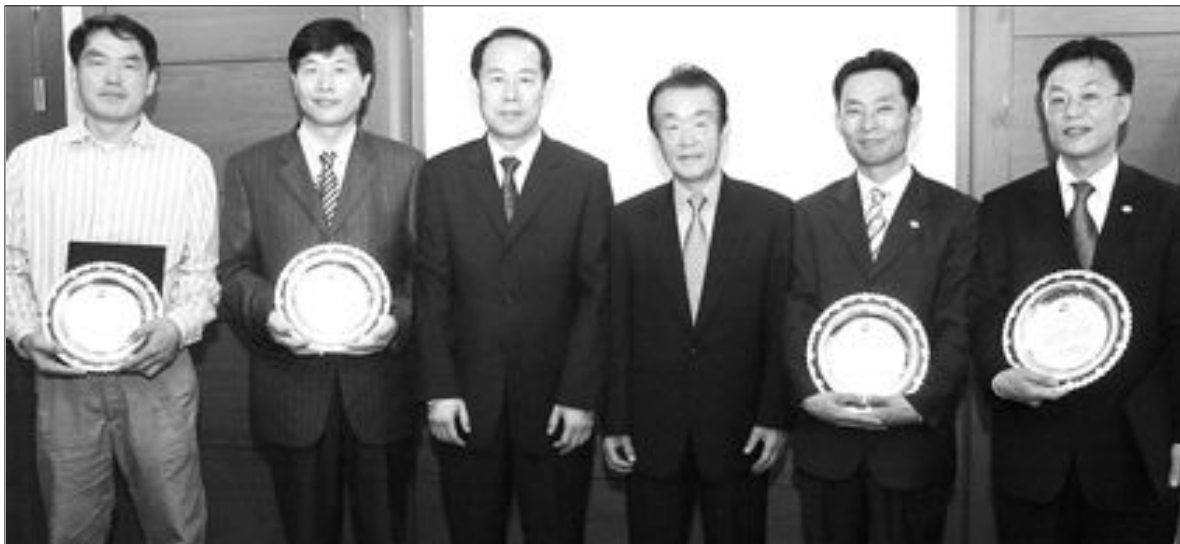
◆**캠퍼스내 투표소 무산**=부재자 투표소는 총장 등 학교 대표자 명의로 선관위에 신청해야 하나, 신청한 대학이 단 한곳에도 없었다. 신청인이 2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곳도 없고,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전남대의 경우 담장을 사이에 둔 북구 선관위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조선대는 정문에서 가까운 KT 전남빌딩에 역시 투표소가 설치돼 있어 거리상 추가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광주대의 경우 남구 선관위에 전화 문의를 했으나, 신청은 하지 않았다.

한편 5·31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 신고자는 ▲광주 2만7천866명(2004년 국회의원 선거 2만9천942명) ▲전남 5만7천673명(“ 4만7천808명)이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광일배 직장바둑대회 우승자 시상 ▶ 인터뷰 20면



22일 광주일보사에서 열린 ‘제15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호(개인전 우승·포스코팀), 이민재(단체전 준우승·광주시청 A팀)씨, 오규철 9단, 봉사 백인호 사장, 김철(단체전 3위·PCA생명팀), 이강민(개인전 준우승·PCA생명)씨. /위정형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성범죄자 30명 신상 공개

인터넷 이용 90%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제10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 중 광주 거주자

는 11명, 전남 19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강간 186명, 강제추행 151명, 성매수 147명, 성매수 알선 46명, 음란물 제작 등 3명 등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지난 5년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 발생유형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인터넷이 성매매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 전력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이 전체의 25.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표준어 서울말 규정은 위헌”

지역말 연구 ‘땃말두레’ 憲訴 교과서에 사투리 등장할 수도

지역말 연구 ‘땃말두레’(회장 한세암)는 23일 표준어 일반도의 현행 여론정책을 폐지할 것과 순화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사투리(땃말)를 각 지역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낸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표준어규정(문교부 고시 제88-2) 제1장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조·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진권과 제11조 평등권, 제31조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함으로써 사투리를 사용하는 지역민들에게 상대적 차별과 그로 인한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줬왔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출신 시인·소설가 등이 주축을 이룬 ‘땃말두레’는 헌법소원을 위해 전라·경상도 등 지역 초·중·고생과 학부모, 직장인, 예술인, 학자 등 13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전라도 지역 사투리를 소개한 책 ‘전라도 우리 땃말’을 펴내며 이어 ‘경상도 우리 땃말’과 ‘제주도 우리 땃말’을 출간하는 등 사투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학교 여교사 교실서 학생에 폭행당해

교육부, 교권침해 즉시 고발

교육부는 2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불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각 보고토록 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고 은폐·지연 보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폭언·폭력행위 위가 있는 경우 교사, 학교장이 즉각 경찰청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

청에 지시한 데 이어 2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권침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래 훈시 중이던 담임교사 S(여·23)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K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S교사에 대해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차 전치 10일간의 상처를 입었다. /황대중기자 hwangtae@

“안전·명예 보호” 징역형 등 잇단 엄벌

■ **교사폭행 범원 판례는**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춘천지법은 2002년 아들을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춘천지법은 2002년 아들을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시 더워져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비가 온 뒤 서쪽지방부터 차차 개겠다.

5월 23일
(음 4월 26일)
◇ 전국날씨

광주	비온뒤 맑	15~26℃
전남	흐린뒤 맑	15~23℃
전북	비온뒤 맑	16~23℃
충남	흐린뒤 맑	15~24℃
충북	비온뒤 맑	14~26℃
강원	흐린뒤 맑	14~26℃
경북	흐린뒤 맑	14~26℃
경남	비온뒤 맑	15~25℃
울산	비온뒤 맑	14~26℃
대구	비온뒤 맑	15~24℃
부산	비온뒤 맑	16~25℃
인천	비온뒤 맑	16~25℃
안양	비온뒤 맑	16~25℃
서울	비온뒤 맑	17~24℃

서울날씨
알바दा=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날씨
알바दा=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10:46 썰물 < 03:52
23:25 썰물 < 16:23
여수 밀물 < 05:55 썰물 < 12:06
18:26 썰물 < --:--

▲해돋이 05:24 ▲해질 19:35 ▲달출 02:39 ▲달정 15: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4/28	15/25	17/24	14/26	15/25	16/24

자기소개서 ‘긍정적이고 밝은’ 문구 써라

인사담당자 85%가 호감

취업 성공의 1차 관문인 서류전형의 자료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기업 인사담당자 126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긍정적이고 밝은”이란 문구에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또 ▲탈튀크(호감도 82.5%) ▲책임감과 협동심이 많음(73.8%) ▲친구가 많음(55.6%) ▲원만한(46.8%) 등과 같이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62.7%)’ ‘~한 경험을 통해 ~를 키웠고(54%)’ 등처럼 뚜렷한 지원동기와 배경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싫어하는 자기소개서 표현으로는 ‘나는’이나 ‘저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의 중복(비호감도 80.2%)이 꼽혔다. 또 ▲뽀아만 즐긴다면(73%) ▲무슨 일하던 열심히(57.9%) ▲약속드립니다(55.6%) 등 분명한 동기·목표를 담지 않은 표현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한편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경력사항(46%)였으며 ▲지원동기(27%) 등 순이었다. /이승배기자 lsb54@

한밤중 택시탈 때 ‘조심’

여승객 성폭행 잇따라

광주 광안경찰은 22일 자신의 택시에 탄 부녀자를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초(41·광주시 북구 용전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8일 새벽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H여객 앞 길에서 승객 임모(여·43)씨가 술에 취해 “요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다. 광주 동부경찰도 이날 미성년자인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장모(23·광주시 남구 백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1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객 김모(여·1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jhim@

대한민국 경제사상 최초로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휴대폰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한 번에 1000개 발송!

승리의 저들집
신라정보통신(주)대우기술연구소

이제 더는 손을 떼지 마세요
승리는 저들집을 찾아주세요!

●저녁 8시 이후 긴급 문자 발송
●1000개 이상 문자 발송 가능
●광고 및 홍보 문자 발송 가능
●이메일 발송 가능
●결제 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서울메트로네트(주)
광주·전남지사 한솔에드빌
Tel. 062-281-7702, 381-5055
H.P. 010-4600-0993

수도 배관 (남·온수·냉수)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수도배관은 청소를 해야 안전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십니까?

수도배관은 오래 사용하면, 수질오염 및 수도관 내벽 부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배관 청소용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배관을 부식시키거나 파손을 일으키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배관 세정
배관 내부에 축적된 슬러지와 부유물 제거, 배관 내벽 부식 예방 및 수질 개선 등 배관 세정 공사를 통해 수도배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수도공급을 보장합니다.

수도배관 세정 방법
1. 배관 내부에 축적된 슬러지와 부유물 제거
2. 배관 내벽 부식 예방 및 수질 개선
3. 배관 내부에 축적된 슬러지와 부유물 제거

수도배관 세정
배관 내부에 축적된 슬러지와 부유물 제거, 배관 내벽 부식 예방 및 수질 개선 등 배관 세정 공사를 통해 수도배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수도공급을 보장합니다.

엘케이그린(주)
112-603-0799